순천 신대천 소하천 정비… ‘힐링 수변공원’ 변신중

유수량 적어 오수 유입·악취 등 취약…하천 폭 25m→40m로 확장

수변 산책로·소규모 공연장·스마트 출입 시스템 등 구축…연말 준공

순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대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하천 확장과 시민 안전 시스템 구축을 넘어 도심 속 수변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경관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대천 정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대천은 3만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신대지구 내 소하천으로, 폭이 25m로 협소해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상존했다. 또 신대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일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좁은 하천폭으로 유수량이 적어 여름철이면 오수 유입, 악취, 모기유충과 같은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신대천 1.2km 구간의 하천 폭을 25m에서 40m로 확장해 수용 능력을 높이고 치수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출입 통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기상청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우기 시에는 자동으로 하천 출입을 통제해 시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비 사업은 하천 본연의 치수, 이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시민 일상속 여가와 쉼터를 제공하는 도심속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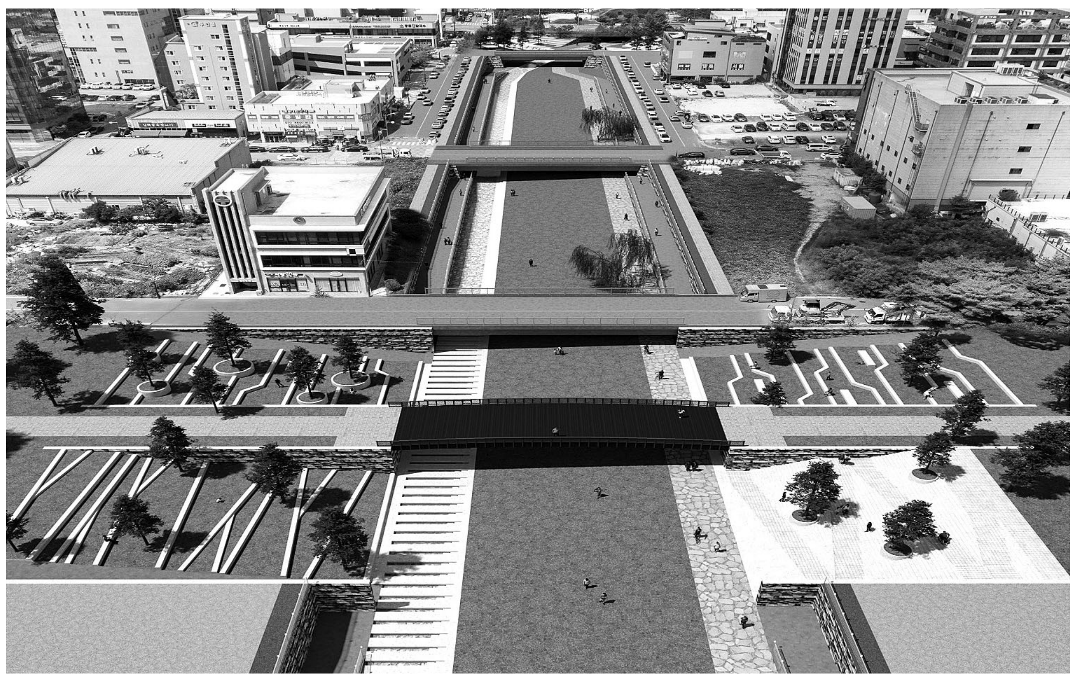
하천 주변은 용도에 따라 주거·상업 구역으로 나눠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거지역의 경우 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적인 느낌을 살려 산책·쉼·힐링에 특화된 고품격 수변 산책로를 조성한다. 상가 밀집 구간에는 야간경관을 연출해 서울 청계천의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부산 온천천의 ‘빛의 거리’ 와 같이 밤이면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는 도심 속 명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대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높아진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하천 정비 구간과 인접한 공원들을 특색 있게 개선하는 사업이 병행된다. 신대교 옆 공원은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작은 무대와 관람석을 배치해 영국 런던의 ‘사우스뱅크 센터’와 같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이자 주민들을 위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기적의 놀이터 주변은 여름철이면 물놀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 신대천 정비사업이 지방 중소도시의 선진적인 하천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친수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신대천 정비 조감도.

광양시청앞 광장서 봄볕 쬐며 독서여행 떠나요

12일 ‘야외도서관’ 운영

잔디밭 소파서 새로운 독서 경험

광양시가 ‘도서관의 날’을 기념해 오는 4월 12일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자연과 책이 어우러진 ‘광양야외도서관-공원애愛서書’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

‘광양야외도서관-공원애愛서書’ 행사는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일상 속 열린 공간에서 책과 만나는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장소 또한 디지털 환경 속 사람과 책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구나 자유롭게 책과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도심 속 공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10월 큰 호응을 얻었던 광양희망도서관의 ‘꿈자람 책뜰’ 행사를 기반 모델로 삼아 시립도서관 7개관의 공동 참여 행사로 확대 운영되는 만큼,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시민광장 잔디밭에 마련된 야외도서관은 빈백 소파, 피크닉 매트, 책바구니 등으로 꾸며진 도심 속 힐링 독서 공간으로,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시민들은 그림책을 비롯해 소설, 에세이, 시집 등 1,200여 권의 도서 중 읽을 책을 자유롭게 고른 후, 잔디 위 빈백에 누워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유아(13개월~초등 1학년) 및 시니어(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한다.

책꾸러미는 대상별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전용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도 북스타트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행사 다음 날인 4월 13일부터는 희망, 용강, 중마, 금호도서관 4곳에서 책꾸러미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몰입과 체험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책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디지털에서 잠시 벗어난 내 안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지정된 공간에서 1시간 동안 독서 미션을 수행해야 하며, 완수 시에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한편, 이 외에도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체험, XR 책놀이, 미니북 만들기, 그림책 표지 컬러링, 독서 퍼즐 미션, 올해의 책 필사 등 다양한 체험형 독서 콘텐츠가 운영된다.

광양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참여 이벤트도 함께 운영한다. 행사 인증샷, 초성 퀴즈, 메타버스 OX 퀴즈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시민들이 책뿐 아니라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특별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풍선 마술쇼, 버블쇼, 미니 음악회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시립도서관 7곳의 대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도서관 홍보 부스도 운영되며, ‘도서관 방문 이벤트’를 도서관주간(4.12~4.18)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높여갈 예정이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책이 삶의 중심이 되는 도시, 시민이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예술의 전당 공연작, 영상으로 무료 관람

순천시문화예술회관 ‘삭 온 스크린’…클래식 콘서트·연극·발레 등

순천에서 예술의 전당 공연작품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인 ‘삭 온 스크린(SAC ON SCREEN)’공모에 선정돼 시민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예술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선보인다.

‘삭 온 스크린’은 예술의전당 대표 공연을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문화시설에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립예술단 및 국내 대표 예술단체의 클래식 콘서트, 연극,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편씩 우수 예술 콘텐츠 영상을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상영한다.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클래식 음악 공연을 시작으로 순차 상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고품격 공연 콘텐츠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료는 전좌석 무료이며, 예술의전당 우수 예술 콘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관람객은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문화예술회관(061-749-8630)으로 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여수 농어촌 학생 장거리 통학 택시 운영

에듀택시, 통학 거리 편도 2km 이상 3개교 초·중생 31명 대상

여수시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듀택시’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편도 2km를 초과하는 초·중학생으로, 올해는 분교장을 포함한 3개교 학생 31명(초등 8명, 중등 23명)에게 지원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여수교육지원청과 ‘에듀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비 1:1 매칭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5400만 원을 투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할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과 ‘안심폰 지원 사업’ 등으로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에 힘쓰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벌써?…고흥군 ‘일본뇌염 주의보’

아동 예방 접종·긴 옷 착용 당부

고흥군이 지난달 27일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라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행동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 주범으로 올해 제주도와 전남에서 발견된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이 모기는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발작·착란·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 경우 치명률이 20~3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따라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야외 활동 자제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방충망 정비와 모기장 사용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등 행동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더불어 예방접종과 모기 차단도 필수적이다.

일본뇌염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 보건소는 매개 모기 발생 차단을 위해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의 정화조와 직관로를 포함한 1035개소에 2회에 걸쳐 유충구제와 월동 모기 일제 방역, 해빙기 집중 방역을 실시했으며, 이후 추가 유충구제와 성충 모기 서식지 및 인구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민 생애주기별 혜택 한눈에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임신·출산, 수강료·취업 지원 등

광양시가 ‘광양시에 살면 모든 세대 혜택 가득, 2025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사진〉은 광양시민이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책 위주로 구성됐다. 또한, 208개 시책을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공통 분야로 나누고 인생 로드맵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혜택을 더욱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우선 가이드북의 첫 번째 순서인 ‘임신·출산’ 분야에는 임신축하지원금 지원,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교통비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등 46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비 지원, 고등학교 인터넷 수강료 지원, 고3학생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 49개 사업을 소개했다.

‘청년’ 분야에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빈점포 활용 청년 사업가 지원 등 41개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중장년, 노년’ 분야에는 은퇴(예정)자를 위한 ‘평생 in 광양, 인생 2막 설계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37가지 사업을 수록했다.

‘공통’ 분야에서는 전입장려금 지급, 시민안전보험,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백운산 치유의 숲 광양시민 할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보훈·참전 유공자 지원 등 35가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올해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게재하는 한편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 책자를 비치 중이며, 향후 기업체 신규직원,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 설명회 개최 시에도 이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리산 산사 물들이는 재즈 선율

천은사, 26일 재즈페스티벌 봄 공연…전용준·김대호·문미향 출연

봄날 지리산 자락에 재즈 선율이 울려퍼진다.

지리산 천은사가 오는 26일 오후 7시 경내 템플스테이 앞마당에서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봄 ‘Monk’s Dream’을 개최한다.

‘비밥 재즈의 거장’ 텔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onk)의 대표작에서 영감을 받은 무대로, ‘Monk’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스님과 음악가 모두의 수행적 여정을 담았다.

피아니스트 전용준과 콘트라베이시스트 김대호가 함께 무대를 이끌고, 재즈 보컬리스트 문미향이 따뜻한 봄 감성을 더한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해온 연주자로, 이번 무대를 통해 ‘꿈꾸는 재즈’의 순간을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전용준은 통영국제음악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서울재즈페스티벌 등에서 주목받은 피아니스트로, 자이언티, 빅뱅, 태양 등 대중음악과도 교류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쌓아왔다. 구조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연주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김대호는 절대음감과 감각적인 연주로 국내 재즈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베이시스트다. 커트 엘링과 협연 등 해외 무대 경험도 풍부하다. 보컬리스트 문미향은 ‘달빛 같은 목소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전통 재즈보컬의 가치를 이어가는 주역이다. 2024년 한국대중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되며 주목을 받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